

고온다습 날씨 지속...병해충 예찰·방제 강화며 안정 생산 총력

- 이승돈 농촌진흥청장, 27일 경남 고성 벼 재배단지 찾아
- 병해충 예찰·방제 상황 살펴
- “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 속도, 방제 체계 구축에 노력”

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8월 27일, 경남 고성군 상리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찾아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상황을 살피고, 벼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방안을 청취했다.

이 청장이 방문한 경남 고성군 상리면 벼 재배단지는 2025년 여름 이상 고온 현상과 벼 등숙기 잦은 비로 곰팡이병인 깨씨무늬병이 확산했었고, 2024년에는 비래해충인 벼멸구 유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.

현재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병해충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강화와 적기 방제를 추진, 대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.

이승돈 청장은 “올 7~8월은 무더위와 비가 반복돼 고온다습한 환경이 형성되고, 8월 하순에도 고온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전형적인 이상 기후 양상을 띠고 있다.”라며 “도열병 같은 곰팡이병과 멸구류·흑명나방 등 해충 발생 급증에 대비, 예찰·방제를 강화해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

아울러 “기후 위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업 재해는 농업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.”라며 “현재 연구 중인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, 중앙-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민간과 협력을 강

화해 방제 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
붙임. 경남 고성 벼 병해충 예찰·방제 현장 방문 계획

담당 부서	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	책임자	과 장	정병진 (063-238-1040)
		담당자	지도관	이경재 (063-238-1051)

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
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대한민국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

경남 고성 벼 병해충 예찰·방제 현장 방문 계획

□ 방문 개요

- 목 적 : 벼 병해충 상습 발생 지역 예찰 및 방제 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
- 일 시 : '26. 8. 27.(목) 14:50~15:15
- 장 소 : 경남 고성(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)

□ 세부 일정

시 간	분	내 용
14:10~14:50	40	• 출발(경남농업기술원 → 경남 고성)
14:50~15:15	25	• 벼 병해충 예찰·방제 현황 점검 * 경남 벼 병해충 예찰 방제 상황 청취, 합동 예찰 고려 등
15:15~16:00	45	• 이 동(경남 고성 →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)